



5월의 보건소식

2022-보건16호

춘포초등학교 교장실 842-8213. 교무실 842-8211. 행정실 842-8212, FAX 842-3448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2020년 1월 코로나의 존재를 알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752일만에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셈이고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주 동안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의 큰 차이는 1급 감염병은 법적인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2급 감염병의 경우 법적인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24시간 내 바로 신고로 바뀌고, 4주 이행기 내에는 7일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지만, 이후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현재)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 ^{4.25.~} ,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응급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세계 보건기구에서 담배 없는 환경을 위해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담배 연기 속엔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까요?

- 4000여종의 화학물질 중 대표 유해 성분

- ① **니코틴** : 강한 중독, 혈관 수축
- ② **타르** : 암을 일으키는 담배진
- ③ **일산화탄소** : 산소부족, 뇌기능 저하
- ④ 그 외에 독가스인 비소,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방부제인 포르말린 성분도 들어있어요.

▶ 청소년 흡연이 왜 더 나쁠까요?

- 비흡연자보다 10년 일찍 사망할 수 있다.
- 또래보다 더 빨리 늙는다.
- 각종 암의 발생률이 3배 높다.
- 심장질환으로 사망 확률이 3배 높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을 앓는다.(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양 성 평 등

성 평등이란 '성별'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 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 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생활 속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야 해! 라는 고정관념은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 행동을 막습니다. 성 역할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 가족이 만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인 가족은 성 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할 때, 딸과 아들로 나누어 대하거나 형제·자매가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예) 남자는 아파도 티내면 안 돼~ 눈물 뚫해.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지~

◎ 대중매체 속에 숨어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TV 프로그램이나 웹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여자,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존댓말이 없는 영어 대화를 번역하면서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사용,
똑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이름으로, 아내는 누구 엄마로 구분

★ 혐오,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배우고 따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남자다운 척', '센 척'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약자의 위치란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나 또한 혐오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혐오의 대상일 수 있으며 혐오는 나만 비켜 가지 않습니다.

혐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 내가 존중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 성 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성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자연스런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때,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가르는 대립과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다움' 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성 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5월 23일, 희소질환 극복의 날

매년 5월23일은 희소질환 극복의 날로, 희소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치료 및 관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날이다.

- **희소질환이란?** →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2만명 이하로 적은 병

- **희소질환의 특징** → 약 80% 정도가 유전질환 → 특성 상 질환정보 및 전문가 부족

→ 임상적 양상이 복잡해 진단이 어려움. 확진까지 평균 7.6년 소요

→ 종류가 7000~8000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전체 환자 점점 증가

- **국내 희소질환 현황**

→ 2018년 국내 희소병 환자 수 50만1320명 →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 현재 의료 기술의 한계로 인해 60-70% 정도는 여전히 미진단으로 남아 지속적인 추가 연구 필요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원문보기:<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22>

2022. 5. 2.

춘 포 초 등 학 교 장